

3월 인성 교육 자료

(매주 월요일 아침 시간 활용)

3월 6일

경주 최부잣집 '육훈(六訓)'

경주 최 부잣집은 400년 동안 9대 진사와 12대의 만석꾼을 배출한 집안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집안의 성공은 이 집안의 가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가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은 하지마라. 둘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셋째, 재산은 만 섬 이상 모으지 마라. 넷째,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다섯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여섯째,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등이다.

이정주, 이선중(2013).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인식유형 파악을 통한 역할상에 관한 연구

최부잣집의 시조는 최진립이다. 최진립은 임진왜란 때 참전하고, 정유재란 때에도 공을 세웠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위도총부 도사, 공조 참판, 삼도 수군통제사 등의 관직을 지냈다. 공으로 씨 부를 쌓은 최진립은 아들 최동량을 교육시켜 최동량이 최부잣집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줬다. 최동량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큰 땅을 구입했다. 산부터 강까지 이르는 큰 땅을 산 후 여기 전체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아들 최국선은 독을 세우고 옆에서 도우며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최부잣집의 3대째 자리를 차지한 최국선부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나눔이 시작됐다. 어느 불교 승려가 “재물은 거름과 같습니다. 재물을 나누면 세상을 이롭게 하지만, 움켜쥐면 썩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눔을 실천했다고 한다. 최국선이 대를 이었을 때 이미 최부잣집은 조선 최고의 부자였다. 최국선은 1671년 조선 현종 때에 흉년이 들어 농민들이 쌀을 빌려간 것을 못 갚게 되자 안타까워 하며, 아들 최의기 앞에서 담보문서를 모두 불살랐다. 최국선은 게다가 죽을 쑤어 거지들에게 푸짐하게 베풀었다. 보리가 여물지 않은 3월과 4월의 보릿고개엔 100석의 쌀을 이웃에게 나눠주었다. 게다가 최국선 대부터서 소작 수입의 1/3을 빈민구제로 쓰는 풍습이 생기면서 200년 후인 최준 대에까지 이어진다. 이렇듯 후손을 엄격하게 교훈하며 탐욕을 줄여갔던 최부잣집은 조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로 불리며, 세상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금융소비자뉴스 2018년 4월 30일자 기사 중 일부

그들은 항일운동과 교육 사업에 전 재산을 바치는 것으로 기나긴 부의 세습을 마무리 했다. 최부자 집안이 칭송을 받는 것은 부를 많이 축적했고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자선활동과 사회공헌으로 지도층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최부자 집안의 모범은 한, 두 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집안의 전통으로 전해 내려온다는 점에서 음미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예종석(2010).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나눔문화의 정착 방안

※ 생각해보기

1. 최 부잣집의 6개의 가훈의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나누어보세요.
2. 최 부잣집은 나눔을 실천하면서도 그 부와 명예를 40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